

韓文字母共享工作的進展與影響

ハンゲルの分かち合い作業の進行と影響

한글 나눔 사업의 진행과 영향

The Development and Influence of Spreading the Korean Alphabet

文·圖 | 李豪榮 LEE Ho-Young (首爾大學語言學系教授·訓民正音學會總務主任)

이호영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 훈민정음학회 총무이사)

訓民正音學會的韓文字母共享工作自2008年5月初開始。在5月8日第一次韓文字母共享工作籌備會議中，選擇了印尼的東南蘇拉維悉省（Sulawesi Tenggara）布敦島（Buton）的中心城市巴務巴務市（Bau-Bau）做為合作對象。任教於韓國外國語大學（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的印尼語專家全副會長（CHUN Tai-Hyun）強力推薦巴務巴務市，因為全教授在2005年至巴務巴務市參加國際文獻學研討會時，巴務巴務市市民予人的印象相當良好，尤其是該市市長也期待雙方能締結友好關係。

5月8日第一次會議期間，學會決定在7月中旬訪問巴務巴務市。在此之前，學會先打聽他們對於以下議題的意見：（1）韓國語教

훈민정음학회의 한글 나눔 사업은 2008년 5월 초에 시작되었다. 5월 8일에 한글 나눔 사업 첫 회의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인도네시아 동남 술라웨시주 부톤섬의 중심도시인 바우바우시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바우바우시를 선택한 것은 인도네시아어 전문가인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전태현 교수가 적극 추천했기 때문이다. 전태현 교수는 2005년 바우바우시에서 열렸던 국제 문헌학 관련 학술대회에 참석했었는데, 바우바우시 사람들, 특히 시장에 대한 좋은 인상을 받아 바우바우시와의 인연을 이어나가길 원했다.

5월 8일의 첫 회의에서 7월 중순 경에 바우바우시를 방문하기로 하고 곧바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바우바우시를 방문하기에 앞서 바우바우시 측의 의사를 미리 타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① 한국어 교육, ② 문자 없는 언어의 한글 서사체계 확립과 교육, ③



Abidin老師使用韓文字母所編寫的奇雅奇雅語課本進行教學。
Abidin선생의 수업모습.

育；（2）沒有文字的語言，如何執行韓文字母系統的建立與教育；（3）透過韓國中心的成立來介紹韓國文化；（4）針對該市與韓國之間的經濟文化交流等支援內容，事先簽訂合作備忘錄（MOU）的簽署意願等。一個禮拜之後，巴務巴務市傳來消息，表示希望能先簽訂合作備忘錄。

2008年7月15日訓民正音學會的李主席（Ms. LEE Ki-Nam）、全副會長（CHUN Tai-Hyun）、擔任總務主任的我（LEE Ho-Young）和我的學生黃小姐（Ms. HWANG Hyo-Sung）一同訪問巴務巴務市。16日簽署了合作備忘錄。其後在巴務巴務市市長辦公室所開的會議中，市長Amirul Tamim推薦以

한국센터 건립을 통한 한국 문화 소개, ④ 한국과의 경제 문화 교류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의향이 있는지 문의했다. 바우바우시로부터 1주일여 만에 양해각서를 체결할 의향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2008년 7월 15일 훈민정음학회의 이기남(Ms. LEE Ki-Nam) 이사장, 전태현(CHUN Tai-Hyun) 부회장, 총무이사인 필자(LEE Ho-Young)와 필자의 제자인 황효성(Ms. HWANG Hyo-Sung)이 바우바우시를 방문했고, 다음 날이 16일 바우바우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 체결식이 끝난 뒤 시장 집무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바우바우시 아미를 따뎀(Amirul Tamim) 시장으로부터 한글 나눔 대상 언어로 찌아찌아어를 추천받았다. 우리 일행은 회의가 끝나자마자 찌아



奇雅奇雅族村民會議。
찌아찌아족의 주민회의.

奇雅奇雅語（Cia-Cia）做為韓文字母共享工作的合作對象。會議結束以後，我們訪問奇雅奇雅族的主要居住地Sora Wolio。抵達Sora Wolio之後，奇雅奇雅族的村落長老、耆老與地方政治領袖一起接待我們。他們甚至召開村民會議，討論往後決定採用韓文字母做為奇雅奇雅族的文字。

2008年11月中旬，五名巴務巴務市政府公務員、一名小學校長及一名位高中校長組成訪問團前來韓國。我們接待他們並邀請他們欣賞韓國社會與文化，還有參訪現代重工業公司。首爾市政府的市政服務中心（Call Center）亦協助安排他們與觀光開發專家會談。

찌아족의 중심지인 소라올리오(Sora Wolio) 지역으로 갔다. 우리가 소라올리오의 찌아찌아 마을에 도착하자 지역 원로들과 지도자급 인사들이 모여서 우리를 맞이했다. 이들은 급하게 소집된 주민회의에서 토론을 통해 한글을 찌아찌아족의 문자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2008년 11월 중순 5명의 바우바우 시청 공무원들과 1명의 초등학교 교장, 그리고 다른 1명의 고등학교 교장으로 이루어진 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했다. 우리는 이들에게 한국의 사회와 문화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과 서울시 콜센터를 보여주었으며, 관광개발 전문가와의 면담을 주선했다.

2008년 12월 1일에는 바우바우시로부터

2008年12月1日，從巴務巴務市來的兩位高中英語老師Abidin跟Marwan到了韓國之後，開始在首爾大學語言教育中心學習韓國語。但是Marwan因為無法適應韓國的寒冬及飲食而得了思鄉病，在一個半月之後返國；Abidin也因為失眠，打算在2009年2月回去。那時，韓文共享的工作遭遇了挫敗。幸運的是，在首爾大學健康診所精神科醫師的幫忙以及我們的陪伴之下，Abidin慢慢地克服了思鄉病。到了5月中旬，Abidin終於在首爾大學語言教育中心裡完成了第二階段的韓國語課程。課程結束之後，我們共同合作用韓文字母來編纂奇雅奇雅語課本。

奇雅奇雅語課本於7月16日出版。出版之後，7月22日在巴務巴務市SoraWolio的Karya Baru小學裡，第一次以韓文字母教奇雅奇雅語。8月6~7日經韓國媒體大幅報導後，在韓文圈造成轟動。當喜愛韓文的民眾得知有韓國人以外的民族也將韓文字母當做本族文字

2명의 현직 고등학교 영어교사인 Abidin과 Marwan이 입국해서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 강좌를 수강하기 시작했다. Marwan은 한국의 겨울 추위와 낯선 한국 음식에 적응하지 못했고, 향수병이 심하게 걸려 1개월 반 만에 귀국했고, Abidin도 심한 불면증이 걸려 2009년 2월 말에 귀국하길 원했다. 이 때가 우리의 한글 나눔 사업에서 가장 큰 고비였다고 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서울대학교 보건진료소의 정신과 의사가 적절한 도움을 주었고, 우리도 아비딘과 자주 만나 함께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아비딘의 향수병 극복에 도움을 주었다. 그 결과 아비딘은 5월 중순까지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Level 2 한국어 강좌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우리와 함께 한글로 쓴 짜아찌아어 교과서를 제작할 수 있었다.

짜아찌아어 교과서는 7월 16일에 출간되었고, 7월 22일 바우마우시 소라울리오 지역에 있는 Karya Baru 초등학교에서 짜아찌아어 수업이 시작되었다. 짜아찌아족이 한글을 그들의 문자로 채택하고 한글을 이용한 짜아찌아어 수업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은 8월 6일과 7일 한국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다. 한글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한국 국민들에게 한글을 사용하는 민족이 하나 더 생겼다는 소식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짜아찌아족이 한글을 도입한 것은 한글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사례라며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자칫 국수주의적인 여론이 확산될 경우 이제 겨우 돌아난 한글 나눔의 싹이 죽어버릴 수도 있다고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데 짜아찌아족의 한글 도입 뉴스는 의외로 New York Times, Wall Street Journal 등의 주요 외신들에서도 비중 있게 보도했다. 서양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로마자가 지배하는 세계에 한글이 끼어든 것으로 보인 측면이 있고, 한국마저도 문화제국주의



筆者與Abidin老師的合照（圖片來源為韓國聯合新聞社）。
이호영 교수와 Abidin선생(연합뉴스).





奇雅奇雅族的領袖們。
찌아찌아족의 원로들.

這件大事，有些人樂觀其成，認為那是因為韓文具有優勢才能促成韓文共享；有些人則擔心國粹主義擴散，可能會使剛起步的韓文共享胎死腹中。

《紐約時報 (New York Times)》與《華爾街日報 (Wall Street Journal)》等國際媒體也很重視奇雅奇雅族使用韓文字母的新聞。西方人的觀點聚焦在韓文字母如何進入由羅馬字所支配的世界，以及韓國是否涉及文化帝國主義等議題。

15世紀時，一般百姓因為不認得從中國借用的漢字，無法表達自己的想法。世宗大

에 동참하는 것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었다.

한글은 15세기 중국으로부터 한자를 빌어 문자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일반 백성이 글을 몰라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문자로 표기하지 못함을 불쌍하게 여겨 이들을 위해 세종대왕이 창제한 문자이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글 나눔 사업을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정신에 기반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문자 없는 민족은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언어 교육을 통해 언어를 전승할 수 없다. 따라서 문자 없는 민족의 언어는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문자 없는 민족에게 문자와 교과서를 만들어 주고 언어교육을 지원해 줌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보존하길

王為了可憐的百姓創造了適用於表達的文字。韓文字母共享工作的基礎，就是在世宗大王創造訓民正音的精神上推展的。

民族沒有文字，就無法記錄自己的歷史與文化，也無法透過學校的語言教育進行傳承；沒有文字的民族語言將面臨消失的危機。所以，我們為沒有文字的民族創立文字與編輯課本來支援語言教育，並期待其語言與文化能因此而保存。

奇雅奇雅族使用韓文字母的消息經媒體報導後，韓國國內有許多人希望能對奇雅奇雅族的個人與團體提供協助。有些人是贈送韓式風箏做為禮物，有些企業則是提供上課用的麥克風，也有企業與團體提供電腦。奇雅奇雅族已經像韓國人的鄰居一樣，將來韓國跟巴務巴務市之間的交流將會非常熱絡。

時至今日，奇雅奇雅族的韓文字母共享工作可說是頗獲好評。可是我們極力避免傷害印尼統合的事情發生，尤其不可破壞巴務巴務市政府與印尼中央政府之間的關係。所以為了避免糾葛，韓國駐印尼大使館甚至出面協議推展工作。

我們並非將無文字的民族視為落後民族，也不是為了在文化上進行控制或支配；我們是以韓文為媒介來符應外國朋友的期待，還有努力去保存人類文化的多樣性。◆



奇雅奇雅語的母音字母表。

한글을 이용한 짜아짜아어 모음표.



奇雅奇雅語課本當中的龜兔賽跑故事。

한글을 이용한 짜아짜아어로 만든 토기전.

기대하고 있다.

짜아짜아족의 한글 도입 뉴스가 보도된 후 국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짜아짜아족에 뭔가 도움을 주고 싶다는 개인과 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연을 만들어 보낸 사람도 있고, 강의용 마이크를 보낸 기업도 있고, 컴퓨터를 보내겠다는 기업과 단체도 있다. 이미 짜아짜아족은 한국인의 가까운 이웃이 되었다. 앞으로 한국과 바우바우시의 교류는 매우 활성화 될 것 같다.

지금까지 짜아짜아족과의 한글 나눔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사업이 인도네시아의 국민 통합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주의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바우바우시 정부와 중앙 정부와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측과 우리의 활동에 대해 충분히 협의해 나가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문자 없는 민족이 열등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으며 그들을 문화적으로 지배하길 원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한글을 매개로 하여 한국인들이 좋은 외국 친구들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하며, 우리의 노력이 인류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